

국어 영역 (A형)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2] 다음은 교내 학생회장 후보들의 연설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자, 여러분 이제 학생회장 후보자들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〇〇〇입니다.

후보 1: 안녕하세요? 후보 1번 〇〇〇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바퀴는 또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바로 연료의 힘으로 바퀴가 굴러가고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이 더 활기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힘, 그런 연료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연료로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후배들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일대일로 선후배를 연결해 줘서 선배들은 후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후배들은 공부 방법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 축제는 몇몇 동아리들만의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장은 한 번 뽑으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일 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2: 안녕하세요? 후보 2번 △△△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누구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가며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공약을 날카롭게 따져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점에 가면 항상 뭘 먹을까 고민되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 매점에 가 보면 먹을 만한 게 없는데다 매점의 운영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매점 메뉴의 다양화와 운영 시간 연장을 적극 건의해서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졸업장 받고 사진 찍는 단조로운 졸업식, 싫으시죠?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졸업식을 의미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공연도 하고 후배들의 축하도 받으면서 졸업식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점 메뉴의 다양화와 운영 시간의 연장, 의미 있는 졸업식을 약속드립니다. 제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 다음은 연설 과정에 따른 각 후보들의 말하기 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정	후보 1	후보 2
도입	연속적인 질문으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②
전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항목화하여 전달 효과를 높인다. ③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인다. ④
결말	점층적 표현으로 청중에게 강조점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핵심 내용을 다시 언급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⑤

2. 두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 ①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 ③ 선후배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④ 학생회장은 학생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⑤ 선거 공약은 신뢰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다음은 ‘교내 과학 학술 대회’의 준비를 위해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이다. 이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연우: 민희야. 어제 공고된 과학 학술 대회 일정 봤어?
민희: 응,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어. 뭐 생각해 둔 것 있어?
연우: 발표문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긴 했는데, 우리 실험을 친구들에게 잘 알려야 하니까 발표문 앞부분에 실험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소개해야 할 것 같아.
민희: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발표 시간이 20분이니까 원고가 길어 지지 않게 실험 과정은 요약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연우: 그리고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여 주면 어떨까?
민희: 좋아. 그리고 우리 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풀어 주도록 하자.

- ① 목적에 맞게 발표 내용을 조직한다.
- ②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한다.
- ③ 청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④ 정해진 시간에 맞게 발표문의 양을 조절한다.
- ⑤ 발표 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

[4~5] 다음은 희서와 엄마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희서: 다녀왔습니다. 아유, 피곤해.
 엄마: 어서 오렴. 배고프지? 엄마 지금 저녁 준비하는데 손이 부족하네. 누가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주면 좋겠네.
 희서: (툭툭거리며) 엄마, 저 피곤해요. 영수 시키면 되잖아요?
 엄마: ㉠ 영수는 두부 사러 갔어. 네가 통명스럽게 말하니 엄마가 서운하다. 우리 착한 딸이 오늘 기분이 별로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희서: (미안해하며) ㉡ 별일 없었어요. (가방을 열며) 근데 엄마, 선생님께서 오늘 주신 가정통신문을 꼭 부모님과 같이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요..... 그런데 밥상머리 교육이란 게 뭐예요?
 엄마: ㉢ 함께 식사하면서 이뤄지는 가정교육을 말하는 거겠지. (가정통신문을 보며) 가족 식사의 날을 정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라는데? 우리도 가족 식사의 날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 가족이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볼까?
 희서: ㉣ 근데 엄마, 오늘 아빠가 용돈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오늘 바쁘신가 봐요.
 엄마: 응. 일이 많으신가 봐. 그렇지만 아빠도 밥상머리 교육의 취지를 아시면 가족 식사의 날에는 일찍 들어오실 거야. 우리 가족도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네 생각은 어떠니?
 희서: 네, 좋아요.
 엄마: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 친밀한 대화를 위해 TV와 휴대폰은 잠시 끄는 게 어떨까?
 희서: ㉤ 엄마가 원하시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와서 도울게요. 근데 엄마, 여기 가정통신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칭찬이나 공감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칭찬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엄마: 알았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자. 그럼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아빠께 전화해 보자.

4. 위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양상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대화 참여자	의사소통의 양상
엄마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 말하려는 배려의 태도가 나타난다. ① ○ 요청이나 명령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표현 방법이 나타난다. ② ○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③
희서	○ 어른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나타난다. ④ ○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⑤

5. ㉠~㉤ 중, <보기>의 '의사소통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 보기 〉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사소통 규칙의 하나로,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후 대화 상황에 맞도록 말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보기>에 착안하여 <조건>에 맞는 글을 쓰려고 한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범고래는 독특한 훈련법으로 새끼에게 사냥법을 전수한다. 훈련은 주로 어미가 담당하는데, 어미는 훈련할 때 한두 차례 예행 연습을 하며 해변의 표면과 기울기를 조사한다. 그리고 어미는 새끼가 육지의 낮선 감촉에 적응하도록 새끼를 데리고 수심이 얇은 곳을 들락날락한다. 그런 후에 실제 시범을 보이며 새끼에게 사냥법을 가르친다. 또한 하나의 사냥 기술을 익히면 다음 단계의 사냥 기술을 교육한다. 실제 사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어미가 사냥감을 잡아와 새끼가 직접 잡아볼 수 있도록 반복하여 연습시킨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마치면 실제 사냥에 나선다.

〈 조 건 〉
 ○ 예상 독자: 마라톤 동아리 회원
 ○ 글의 목적: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신입 회원까지 모두 완주하기 위한 방법 제시



마라톤 동아리 회원들에게
 우리 동아리가 다음 달에 있을 단축 마라톤 대회에 신입 회원들과 함께 참가할 예정이야. 그래서 대회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 몇 자 적어.
 먼저 동아리 선배들은 ㉠ 마라톤 코스를 미리 답사해서 주변 환경을 확인했으면 해.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 신입 회원들이 마라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선배들이 ㉢ 직접 뛰면서 적절한 마라톤 주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겠지? 대회의 참가 복장에 대해서도 잘 알려줘야 해. ㉣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운동복과 가벼운 운동화도 준비하게 일러 주자. 마지막으로 ㉤ 신입 회원이 실전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코스를 마련해 여러 번 뛰어 보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 동아리 회장 ○○○

- ① ㉠ ② ㉡ ③ ㉢ ④ ㉣ ⑤ ㉤

[7~8] <보기>는 ‘학습 환경’과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가) 학생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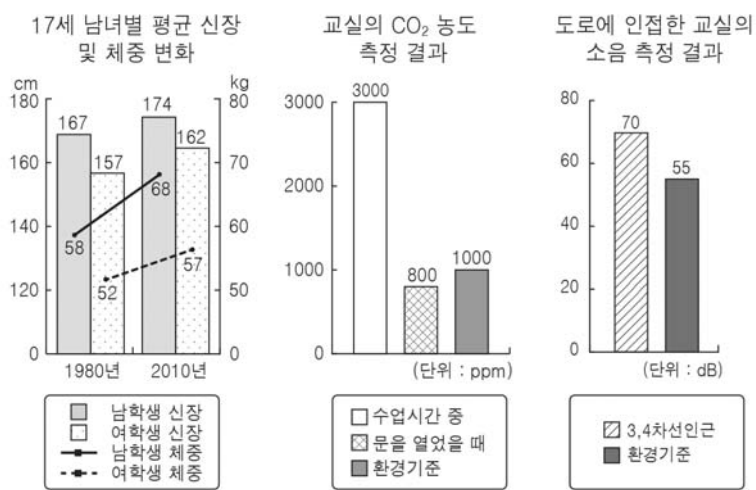
“우리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책상이 너무 낮아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공부할 때 집중도 안 돼요.”

- 김○○

“학교 시설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교실 문을 너무 세게 닫거나 사물함을 험하게 사용해서 고장 난 것이 많아요.”

- 이○○

(나) 조사 자료



(다) 신문 기사

○○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실의 29.7%가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서 정한 적당한 조도(300Lux)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도가 낮으면 교실이 어두워 학생들의 시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 분위기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된다.

- ○○ 신문 중에서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였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제목 :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제안인 : ○○고등학교 학생회장 신청일 : 2012. ○. ○.

건의 대상 : 학생 복지 위원회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박○○입니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아 건의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 요즘 학생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 체격이 커졌는데 책상과 의자가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아 공부하는 데 불편합니다. 또 우리 학교 옆에는 큰 도로가 있어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 수업 중에는 창문을 열 수가 없어 교실 안 공기가 탁해집니다. 교실의 조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 교실에 있는 사물함들이 너무 낡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 책상과 의자를 학생들의 체형에 맞도록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 창문을 열지 않고도 교실의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기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셋째, 밝지 않은 형광등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학습 환경이 개선되면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므로 학습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와 관련하여 ‘교내 시설물을 아껴 쓰자’는 주제로 캠페인 문구를 작성하고자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조 건 〉

-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권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것.
- 대구와 대조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공부는 교실에서, 놀이는 운동장에서
교실은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 ② 부서진 사물함에, 뽕뽕 차버린 교실 문짝까지
후배들이 보게 될 당신의 모습입니다.
- ③ 남의 것이라 여기면 돌덩이, 내 것이라 여기면 금덩이
학교 시설을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룹시다.
- ④ 무심코 발로 찬 사물함 문짝, 어느덧 커지는 양심의 구멍
우리 모두 시설물을 보호합시다.
- ⑤ 장난칠 때는 장난감으로 하세요. 낙서할 때는 연습장에 하세요.
책상은 장난감도 연습장도 아닙니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다음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당나라 시인 이백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침 한 할머니가 냇가에서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이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바늘을 만들고 있다요.”라고 할머니가 대답하자, 이백은 깜짝 놀라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고요?”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백을 쳐다보며 “젊은이,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

오늘 작문 시간에 이백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이백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주제는 쉽게 찾아냈지만, 이와 관련된 글감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막막했다. 나의 글이 친구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우리들이 일상에서 공유한 소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써 온 학급 일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학급 일기에는 교내 합창대회에 관한 우리들의 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

교내 합창대회를 앞두고 우리 반 친구들은 좋은 ㉠ 취지를 얻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 ㉡ 그런데 여러 친구들이 음을 정확히 내지 못해서 화음이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합창대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 선생님은 연주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던 중 여러 친구들이 학급 일기에 다시 열심히 해 보자는 글을 썼고, 이것을 읽은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보기로 했다. 성악을 공부하는 친구가 나서서 우리들에게 기초적인 발성과 정확한 음정을 가르쳐 주었고, ㉣ 시간이 날 때마다 합창곡을 연습했다. 그 결과, 우리 반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 이루어 낸다.

9. '과제 수행을 위한 글쓰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낸다.
- ② 시각 자료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 ③ 다양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낸다.
- ④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글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⑤ 중심 생각을 하나의 어휘로 압축해 제시하여 표현 효과를 높인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은 '결과'로 대체한다.
- ②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해서 ㉡은 '그래서'로 바꾼다.
- ③ 글의 흐름상 통일성이 떨어지므로 ㉢은 삭제한다.
- ④ 필요한 문장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 앞에 '우리는'을 추가한다.
- ⑤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로 바꾼다.

11. <보기 1>을 참고 할 때, <보기 2>의 ㄱ~ㄴ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ㅌ, ㅊ,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다니어'가 '다녀'로, '오아서'가 '와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보기 2>

어간	어미	표기	발음
ㄱ. 끊-	+ -어	→ 끊어	[끄러]
ㄴ. 좋-	+ -고	→ 좋고	[조코]
ㄷ. 가지-	+ -어	→ 가져	[가져]
ㄹ. 미루-	+ -어	→ 미뤄	[미뤄]
ㅁ. 보-	+ -아서	→ 봐서	[봐서]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12. '보조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나는 지난 주말도 ㉡ 미술관에 다녀왔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 그 친구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가게 되었다. ㉣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 ㉤ ㉡ 미술관에서 버스 정류장은 멀지만 전철역은 가까워서 전철을 타고 갔다. ㉡ 미술관에는 추상화부터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행복해진다.

- ① '도'에 주목하면, ㉠에는 '나'가 지난 주말 이전에 ㉡ 미술관에 간 경험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만'에 주목하면, ㉢에는 ㉡ 미술관에 가기로 한 '나'의 결정이 친구들의 결정과 같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뿐'에 주목하면, ㉤에는 '나' 이외의 친구들은 미술관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에 주목하면, ㉤에는 ㉡ 미술관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마다'에 주목하면, ㉥에는 '나'는 ㉡ 미술관에 가 있는 시간이 항상 행복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

13.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국어사전에는 제각기 다른 표제어로 수록됨.

발¹ — 오래 걸었더니 발이 아프다.

발² — 여름에는 문에 발을 친다.

배¹ — 점심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배² — ㉠

○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 같은 어원에서 나왔지만 뜻이 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됨. 국어사전에는 하나의 표제어로 수록됨.

다리 — 민희가 다리를 다쳤다.

다리 — 책상 다리가 부러졌다.

- ① 저 돌기둥은 배가 불룩하다.
- ② 이번 달에는 물가가 배로 올랐다.
- ③ 태풍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였다.
- ④ 할아버지는 달콤한 배를 좋아하신다.
- ⑤ 우리는 총장 배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14.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 지: 선생님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 드릴까요?
 선생님: 민지네? 도와주면 고맙지. 요즘 어떻게 지내?
 민 지: 잘 지내요! 그런데, 선생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선생님: 요즘 운동 시작했거든. 넌 무슨 운동하는 거 있지?
 민 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예전에는 줄넘기라도 했는데.....
 선생님: 왜, 요즘 많이 바쁘니?
 민 지: 공부하랴 축제 준비하랴 조금 바빠요, 요새.
 선생님: 힘내라! 참, 그런데 너 이번에 토론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민 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좀 긴장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늦었지만 축하해. 얘기하다보니 다 왔네, 교무실에. 민지야 고마워, 짐 들어줘서.
 민 지: 천만에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래, 민지야 다음에 또 보자.

- ① 화제 전환이 자주 이루어진다.
- ②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체된다.
- ③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빈번하게 생략된다.
- ④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군말이 자주 사용된다.
- ⑤ 표정과 몸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순화어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단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진다. 이 중 합성어는 ‘산길’, ‘뛰놀다’와 같이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이와 달리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파생어는 ‘꽃사과’와 같이 ㉡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와 ‘잠보’와 같이 ㉢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

<보기 2>

외래어를 순화한 말도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외래어	의미	구성 요소	순화어
매치업	서로 맞서서 대결함.	‘맞-’, ‘대결’	맞대결
다크서클	눈 아랫부분이 거무스름하게 그늘이 지는 것을 가리킴.	‘눈’, ‘그늘’	눈그늘
패셔니스타	맵시 있거나 맵시를 잘 부리는 사람.	‘맵시’, ‘-꾼’	맵시꾼

- | | ㉠ | ㉡ | ㉢ |
|---|-----|-----|-----|
| ① | 눈그늘 | 맞대결 | 맵시꾼 |
| ② | 눈그늘 | 맵시꾼 | 맞대결 |
| ③ | 맞대결 | 눈그늘 | 맵시꾼 |
| ④ | 맵시꾼 | 맞대결 | 눈그늘 |
| ⑤ | 맵시꾼 | 눈그늘 | 맞대결 |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의 신체 반응은 정서에 의해 유발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제임스와 랑에는 정서에 의해 신체 반응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반응이 오히려 정서보다 앞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웃으니까 기쁜 감정이 생기고, 우니까 슬픈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게 되는 위급 상황에 처한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의 신체 반응을 하게 된다. 이후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난 운전자는 상황을 떠올리며 공포감과 놀라움의 정서를 경험한다. 이는 외부자극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신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한 이후 공포감이나 놀라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부자극은 인간의 신체 내부에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일으키고, 정서는 이러한 신체 반응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면 정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캐넌과 바드는 신체 반응 이후 정서가 나타난다는 제임스와 랑에의 이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은 첫째,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신체 반응은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정서를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 대뇌에 입력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극되므로, 정서와 신체 반응은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한 신체 반응에 하나의 정서가 일대일로 대응되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격한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 신체 반응의 경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신체 반응은 분노를 느낄 때도 나타나며, 심지어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도 나타난다. 즉, 특정한 신체 반응이 여러 가지 정서들에 대응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신체 반응 이후에 특정한 정서가 유발된다고 한 제임스와 랑에의 이론은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자율신경계: 생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위장, 혈관, 신경, 심장, 땀샘, 침샘 등이 작동되는 신경계

16.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되는 두 관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비유적 진술을 통해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시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여러 이론의 장점을 추출한 후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7. **캐넌과 바드**가 주장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ㄱ. 신체 반응과 정서는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ㄴ.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정서 변화를 유발한다.
 ㄷ. 정서는 신체 반응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ㄹ. 동일한 신체 반응에 여러 가지 정서가 대응될 수도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8. <보기>는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학습을 위해 찾은 자료이다.

[가]와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실험 과정

1. A 집단은 볼펜을 가로로 입에 물게 하여 웃는 표정을 짓게 함.
2. B 집단은 볼펜을 세로로 해서 볼펜의 한쪽 끝을 입술로 살짝 물게 하여 우울한 표정을 짓게 함.
3. 두 집단에 동일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어 감상하게 함.
4. 다큐멘터리를 본 후, 내용을 기억하여 서술하게 함.

○ 실험 결과

- A 집단: 내용의 전체적 구조를 기억하는 사고 양상을 보임.
- B 집단: 내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사고 양상을 보임.

* 단, 동일한 환경 조건임을 전제로 함.

- ①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따라 두 집단의 사고 과정이 달라지고 있군.
- ② 볼펜을 물게 하는 방식은 실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군.
- ③ 실험 집단의 기억 양상에 따라 신체 반응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군.
- ④ 사고 양상의 차이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신체 반응이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사고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군.

[19~20] 다음은 독서 과정에 따른 한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읽기 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공정 무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공정 무역이라는 게 제3세계 노동자들이 만든 물건을 제값에 사는 거라는 정도는 아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일단 공정 무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적어 놓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봐야겠어.

읽기 중

궁금한 것들을 미리 적어 두었더니 좀 더 책을 꼼꼼히 읽게 되네. 그런데 공정 무역을 하는 기업이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 일단 좀 더 읽어 봐야겠어.
 (좀 더 읽은 후) 여기까지 읽으니깐 조금 전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글쓴이가 공정 무역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 무역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탓한 건 문제가 있어. 이윤 창출은 기업들의 당연한 목표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윤리 의식이나 소비 행위도 공정 무역 확대에 영향을 주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공정 무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어. 공정 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건 분명하니까.

읽기 후

공정 무역이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어. 이런 생각과 중요한 내용들을 독서 기록장에 간단히 정리해 봐야겠어. 그리고 나부터도 공정 무역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19. 위 학생의 각 단계별 독서 방법 및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계	독서 방법 및 활동
읽기 전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 ① 화제에 관한 자신의 의문점을 메모해 둔다. …………… ②
읽기 중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③ 글의 일부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읽는다. … ④
읽기 후	글을 통해 알게 된 바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다. …… ⑤

20. <보기>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창조적 독해는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독자가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토대로 자신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 ① 공정 무역의 개념과 효과 등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다.
- ② 공정 무역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읽기 전략들이 적절했는지 점검한다.
- ③ 글을 읽어가면서 무역과 관련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가며 이해한다.
- ④ 목차와 소제목을 미리 훑어보고 공정 무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짐작한다.
- ⑤ 공정 무역은 글쓴이가 말한 가치 외에, 인류애와 같은 가치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구성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의 산업 발전에 따라 강도와 경도가 높은 금속 재료에 대한 특수가공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수가공 중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방전 가공은 방전 현상을 이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방전 가공은 전극과 가공하려는 금속, 즉 피가공체 사이에 방전을 발생시켜 금속 재료를 원하는 형상으로 깎아내는 기술이다. 방전이란, (+)극과 (-)극에 높은 전압이 가해지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양극 사이에 위치한 액체 또는 기체의 절연성*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 방전 가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극과 피가공체를 절연액 속에 모두 담그고 전극에 (-)극을, 피가공체에 (+)극을 연결한 후 높은 전압을 가하면, 전극과 피가공체의 사이에 위치한 절연액이 이온화*되어 전기가 통하는 성질, 즉 전도성을 띤 액체가 된다. 또한 전극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은 전도성을 띤 액체를 통해 (+)극인 피가공체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액체 내의 원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원자는 전자 하나를 배출하면서 양이온(+)*이 된다. 이후 원자와 충돌했던 전자와, 원자로부터 배출된 또 다른 전자는 피가공체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원자들과 각각 충돌하여 전자들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전자 사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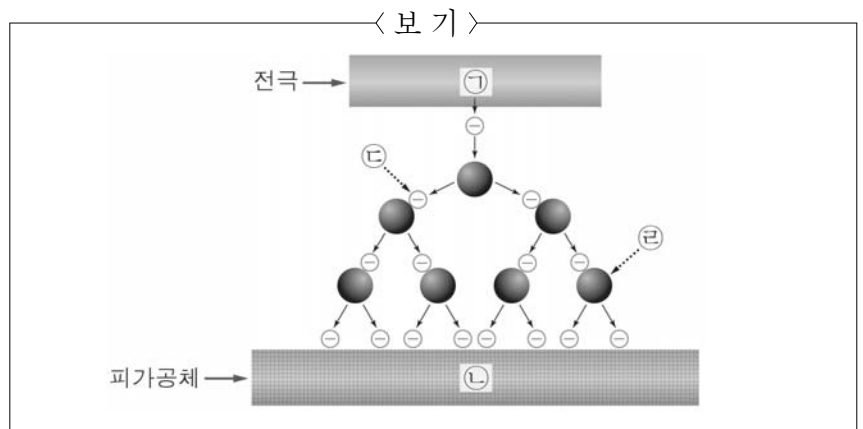
이때 더욱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자사태로 인해 늘어난 수많은 전자들이 더욱 빠르게 이동하여 원자와 충돌하면서 열과 불꽃을 발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들은 불꽃 기동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를 '방전주'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방전주를 비롯한 수많은 전자가 피가공체의 표면에 부딪히면 충돌에 의해 열이 발생되어 피가공체 표면의 일부를 용융*시키게 된다. 이와 동시에 높은 열에 의해 피가공체의 표면에 인접한 액체도 기체 상태가 되면서 그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게 되고, 이 기체가 피가공체 표면에 높은 압력을 가하여 용융된 부분을 피가공체로부터 분리시킨다. 이때 전류 공급을 중단하면 방전 현상은 사라지고 전극과 피가공체 사이의 전도

성을 띤 액체가 절연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 절연액이, 용융되어 피가공체 표면으로부터 분리된 부분을 제거하면서 피가공체 표면에는 패인 곳, 즉 크레이터가 생기게 된다.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크레이터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면 원하는 형태의 가공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 * 절연성: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
- * 이온화: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또는 분자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거나 전자가 추가되어 음이온이 되는 현상
- * 용융: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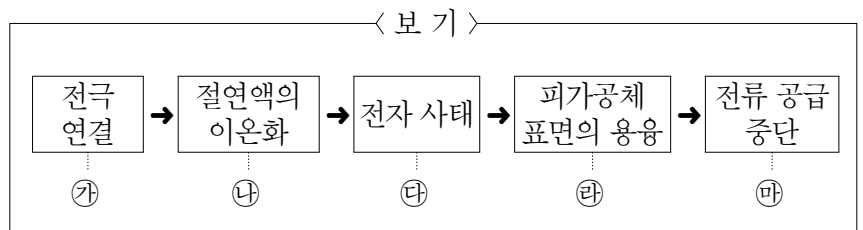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은 절연액 속에 담겨 있는 상태이다.
- ② ㉠에는 (-)극이, ㉡에는 (+)극이 연결된다.
- ③ ㉢은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 또 다른 전자를 발생시킨다.
- ④ 전압이 높아질수록 ㉢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 ⑤ 충돌 이후 ㉢은 ㉠으로, ㉣은 ㉡으로 각각 이동하게 된다.

22.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절연성이 파괴되겠군.
- ② ㉡ 단계가 되면 전자가 액체를 통해 피가공체로 이동하겠군.
- ③ ㉢ 단계에서는 전자의 수와 함께 양이온의 수도 늘어나겠군.
- ④ ㉣ 단계에서는 피가공체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겠군.
- ⑤ ㉤ 단계에서는 절연액이 피가공체로부터 분리된 부분을 제거하겠군.

2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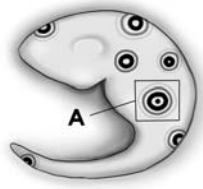
< 보 기 >

“결론적으로 방전 가공의 핵심은 ()을(를) 이용하여 금속의 표면을 가공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① 높은 열과 압력
- ② 피가공체의 형태
- ③ 전극의 강도와 경도
- ④ 전자와 원자의 결합
- ⑤ 기체의 절연성과 전도성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호랑이나 표범과 같은 동물의 무늬가 생기는 원리는 무엇일까? 20세기 중반 앨런 튜링은 ‘반응-확산 모형’으로 동물의 무늬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의 몸속에는 털이나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화학 물질인 멜라닌이 있는데, 멜라닌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며, 이를 돕는 물질을 확산제라고 한다. 반면 멜라닌의 확산을 억제하는 물질을 억제제라고 하는데, 확산제가 작용할 때 억제제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한다.



<그림>

<그림>은 동물 태아의 피부에 무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다. <그림>의 A에서, 원형의 검정색 부분은 멜라닌이 확산제에 의해 확산된 부분이며 원과 원 사이의 여백들은 억제제의 작용으로 멜라닌이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다. 보통 확산이 일어나면 억제제가 뒤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A에서와 같은 여백의 형태가 나타난다. 만약 확산제의 농도가 억제제의 농도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무늬가 없는 단일한 피부색이 나타난다.

한편, 제임스 머레이는 동물들의 무늬가 다른 이유를 밝혀냈다. 동물의 무늬는 태아 상태일 때의 특정 시기에 순간적으로 생성되는데, 태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 때 무늬가 생성되느냐에 따라 무늬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태아가 어느 정도 자란 시기에 반응-확산이 일어나면, 태아의 몸체에 무늬가 형성될 만한 공간이 충분하므로 원형의 무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태아의 크기가 작아 무늬가 형성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응-확산이 일어나면, 원형 무늬 전체가 태아에 모두 나타나지 못하고 그 일부만이 끊긴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이 아닌 줄무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동물은 몸에는 원형 무늬를 가지지만 꼬리에는 줄무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무늬가 형성될 시기에 몸통에는 원형 무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했지만 꼬리 부분은 몸통에 비해 너무 작아서 원형 무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 무늬의 일부인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다.

24.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동물의 무늬는 태아 상태일 때 생성된다.
- ② 동물의 털이나 피부의 색깔은 멜라닌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확산제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무늬의 간격이 넓어진다.
- ④ 보통 확산제의 작용이 일어나면 억제제의 작용도 일어난다.
- ⑤ 제임스 머레이는 동물의 무늬가 다르게 생성되는 이유를 밝혀냈다.

25. 위 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할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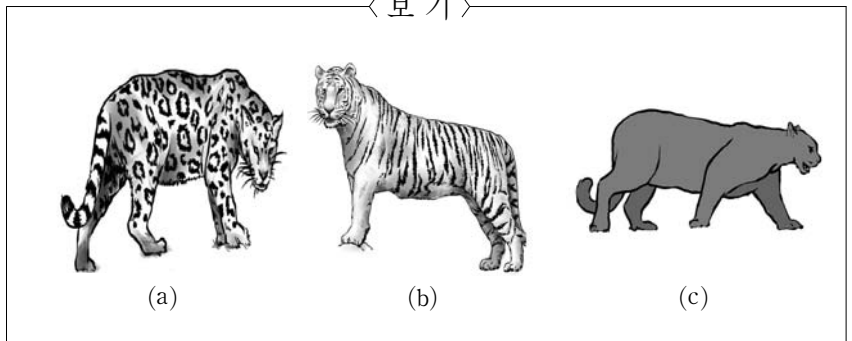
< 보기 >

○○산의 아래에서 시작된 ㉠ 산불은 ㉡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졌고, 소방대에서는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를 동원하여 ㉢ 소화액을 살포했다. 불은 진화되었지만 불이 났던 산에는 얼룩덜룩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	㉡	㉢
①	억제제	확산제	멜라닌
②	억제제	멜라닌	확산제
③	멜라닌	확산제	억제제
④	멜라닌	억제제	확산제
⑤	확산제	억제제	멜라닌

2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 ① (a)는 무늬가 형성된 시기에, 몸통과는 달리 꼬리에는 원형 무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겠군.
- ② (b)는 무늬가 형성된 시기에, 몸통과 꼬리에 모두 원형 무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겠군.
- ③ (c)는 무늬가 형성될 시기에, 확산제의 농도가 억제제의 농도보다 지나치게 높았겠군.
- ④ (a)와 (b)는 각각 태아의 특정 시기에, 반응-확산 작용이 일어나 무늬가 형성되었겠군.
- ⑤ (a)와 달리, (c)는 태아의 특정 시기에 확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복지 제도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 전달 형식에 따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민 혹은 시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생필품 혹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수급자는 수혜 받은 것에 상응하는 의무를 ㉡ 지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가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이들에게 사회적 소외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기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시민들과 관련 기업에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사회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보험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의 총체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선진복지국가의 노인수당(old age benefits)과 같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대로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가 처해 있는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급여의 지급이 현금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가진 특정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에는 국가가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가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적 기관의 서비스를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나라들은 서비스 증서를 제공하는, 일명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여 후자 방식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노인수당은 수급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사회복지 제도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급여 전달 형식이다.
- ③ 사회보험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④ 공공부조는 수급 대상자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⑤ 바우처 제도는 수혜자의 복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8. ㉠과 ㉡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 ② ㉠은 ㉡과 달리 권리적 성격보다 수혜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은 ㉠과 달리 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④ ㉠과 ㉡은 모두 수급자가 수혜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 ⑤ ㉠과 ㉡은 모두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운영된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회서비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의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던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를 역으로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기도 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기도 한다.

- ①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②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은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③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될 것이다.
- ④ 사회서비스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종사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 ㉢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낯은 초가집이 산을 지고 앉아 있었다.
- ② 그 선수는 바람을 지고 달리고 있었다.
- ③ 그는 나무 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걸어왔다.
- ④ 아우와 나는 이불과 옷 보따리를 등에 졌다.
- ⑤ 당신은 당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임금이 팔도에 ㉠ 공문을 내려 길동을 잡아들이도록 어명을 내렸지만, 길동의 조화는 갈수록 무궁해졌다. 서울의 큰길에 혹은 수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각 고을에 미리 통고해 놓고는 쌍가마를 타고 왕래하기도 하며, 혹은 어사로 꾸며 탐관오리의 목을 자르고 임금에게 보고하되 임시 어사 홍길동이 올리는 ㉡ 공문이라 했다. 이에 임금은 더욱 진노했다.

“이놈이 각 도에 다니며 이런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도 잡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임금이 삼정승과 육판서를 모아 놓고 의논을 하는 중에도 연이어 ㉢ 장계가 올라왔다. 모두 다 팔도에서 홍길동이 장난한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이 차례대로 보고는 크게 근심하여 주위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이놈이 아마 사람은 아니고 귀신인 것 같소. 조신 중에서 누가 그 근본을 짐작할 수 있겠소?”

한 사람이 나와서 아뢰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아무개의 서자요, 병조좌랑 홍인형의 서제이오니, 이제 그 부자를 잡아와 친히 문초하시면 자연히 알게 되실 줄 아옵니다.”

임금이 더욱 화를 내었다.

“그런 말을 어찌 이제야 하는가?”

하고는 즉시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

이리하여 홍아무개는 의금부에 가두고, 먼저 인형을 잡아들여 임금이 몸소 문초를 했다. 임금이 진노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길동이라는 도적이 너의 서제라는데, 어찌하여 막지 않고 그냥 두어 국가에 큰 재앙을 불러오게 하느냐? 네가 만일 잡아들이지 않으면 네 부자의 충효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빨리 잡아들여 나라에 변이 없게 하라.”

인형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의 천한 아우가 있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달아난 지 몇 년이나 지났으며, 그 생사를 알지 못하여 신의 늙은 아버지는 그 때문에 신병이 위중한 나머지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동이 착하지 못하여 성상께 근심을 끼쳤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엇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자비로운 은덕을 내려 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시와 집에 돌아가 조리하게 하시면, 신이 죽음으로써 맹서하건대 길동을 잡아 저희 부자의 죄를 면할까 하옵니다.”

임금이 다 듣고 감동하여 즉시 홍 아무개를 사면하고, 인형에게 경상감사를 제수하면서 말했다.

“경이 만일 길동을 잡지 못하면 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볼 것이니라. 일 년 기한을 주니 그 안에 잡아들이도록 하라.”

인형이 수없이 절하며 감사하고 임금께 하직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로 경상 감사로 부임해서는 각 고을에 ㉣ 밧을 붙였다.

(중략)

㉠ 감사는 이 밧을 각 고을에 붙인 뒤 길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귀를 탄 소년 하나가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감영문 밖에 와 뵈기를 청했다.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길동인지라, 기쁘고도 놀라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길동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네가 한 번 집을 떠난 뒤 생사를 알 수 없어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 너는 갖가지로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을 불러일으키니, 무슨 마음으로 불충 불효를 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하지 못할 죄를 짓느냐? 이 때문에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도록 하셨다. 이는 피치 못할 죄이니 너는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 왕명을 받아라.”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부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으오리까? 대감께서 일찍이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은 말해 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이 몸을 결박하시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면서 ㉤ 공문을 쓴 다음, 길동의 목에 칼을 채우고 밧에 차꼬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그리고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호송하게 한 뒤, 주야로 갑절의 길을 가도록 시켜 올려 보냈다. 각 고을 백성들은 길동의 재주를 익히 들어 아는지라, 길동을 잡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했다.

그런데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임금이 대경하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리는데, 여덟 명의 길동이 다투면서 말했다.

“내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괴이하게 여기고 즉시 홍아무개를 불러 명했다.

“자식을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한 자가 없다 했으니, 저 여덟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이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었다.

“신의 천한 자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그것을 자세히 살피시면 진짜 길동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여덟 길동을 보고 꾸짖었다.

“네 이놈!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로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홍공은 피를 토하며 엎어져 기절했다. 임금이 크게 놀라 췌내의 약국에 명해 치료하게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여덟 길동이 이를 보고 일제히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 입에 넣어드리니, 홍공이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 허균, 「홍길동전(경판본)」 -

31.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은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했다.
- ② 임금은 길동을 잡기 위해 그의 가족을 이용했다.
- ③ 임금은 홍공에게 진짜 길동을 가려낼 것을 요구했다.
- ④ 임금은 길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신하로부터 얻었다.
- ⑤ 인형은 자신의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길동을 위협에 빠뜨렸다.

32. [A]와 [B]에 나타난 '인형'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특이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② [A]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B]는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임금의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 ② ㉡는 길동이 스스로 탐관오리를 처벌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임금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 ③ ㉢는 길동이 여러 곳에 나타나 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길동의 능력을 부각시킨다.
- ④ ㉣는 인형이 길동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인형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⑤ ㉤는 인형이 길동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34. ㉠에 담긴 '감사'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수고대(鶴首苦待)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 ③ 견물생심(見物生心)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인생(人生) 백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사니 이 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말아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수>

천심절벽(千尋絕壁) 섯난 아래 일대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漁釣)* 생애(生涯) 늙어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보리밥 과 생채(生菜)를 양(量) 맞춰 먹은 후(後)에 모재(慕齋)*를 다시 쓸고 북창하(北窓下)에 누웠으니 눈 앞에 태공(太空) 부운(浮雲)*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제3수>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 곧 설워 하노라.
 <제4수>

저 가마귀 짓지 말아 이 가마귀 좇지 말아 야림(野林) 한연(寒烟)*에 날은 조차 저물거늘 어엿불사 편편(翩翩) 고봉(孤鳳)*이 갈 바 없어 하는구나.
 <제5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배 뗏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 메고 십 리(十里) 장사(長沙) 내려가니 연화(烟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수>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 염치: 싫어하지
-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 * 어조: 물고기를 낚음.
- *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집
- * 태공 부운: 넓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 * 낙화광풍: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 * 야림 한연: 들관 숲속의 차가운 안개
- * 편편 고봉: 훨훨 나는 외로운 봉황
- * 죽간: 대나무 장대. 여기서는 대나무로 만든 낚시대
- * 연화: 안개가 피어오르는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6. 위 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 드러난 '망기'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제2수>의 '어조 생애'로 실현되고 있군.
- ② <제2수>의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제4수>의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제3수>의 '보리밥 과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에서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④ <제4수>의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제5수>에서 '가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 ⑤ <제6수>에서 화자가 처한 공간인 '어촌'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제1수>의 '빈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 노인은 대구 정거장 앞에서 군밤을 팔며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주인집 아이 돌잔치에서 고기 한 점을 주워 먹다 체해 죽고, 하나뿐인 아들은 여러 번 죄를 짓고 징역살이를 하다가 근래에는 도망을 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그는 바람 찬 길거리에 나와 군밤을 팔고 앉아 있는 것도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장사가 아니었다. 이자도 없을 송장이라 단 몇 푼이라도 주머니가 비지 않아야..... 하고 죽으려는 준비요 죽기 위한 벌이었다.

이 늙은이가 불도 다 피우기 전이다.

‘만석 아버지’ 하고 그에게로 뛰어와 뒷짐 지고 우뚝 섰는 여남은 되어 보이는 계집애가 하나 있었다.

“밤 많이 구웠수?”

영감은 본 체도 안 하고 불을 붙였다.

그 계집애는 그 영감의 주인집 부엌어멈의 딸로 불도 붙여주는 체하고 밤껍질도 까주는 체하다가 부스러진 밤이나, 너무 타서 팔지 못할 것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틈만 있으면 나오는 계집애다.

“만석 아버지?”

“왜 요년이 방정을 떠나 ㉠.....”

“만석 아버지한테 편지 온 것두 모르고 ㉡.....”

그 계집애는 우표가 두 장이나 붙고 여기저기 도장 찍힌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글 모르는 이 영감이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내한테 편지라니.....’ 하고 망설이고 섰을 때 마침 밤 사려는지 손님 하나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미안하외다. 아직 구운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보시우?”

“왜요?”

“수고스럽지만 이것 ㉢..... 이 편지 피봉 좀 봐주시구려.”

그냥 속두루마기에 방한모에 삼팔 목도리에 노란 구두에, 금테 안경에 이 밤 사러 왔던 젊은 신사는 친절히 편지를 받아들었다.

“황○○가 누구요?”

“그건 내지요.”

“서울서 서일권이란 사람한테서 온 것이구려.”

“서일권이요? 서일권이라 ㉣..... 아무튼 속두 좀 이거 황송하외다만..... 선심이지니.”

“그러나 이게 영감에게 온 서류 편지니 영감이 뜯으시우.”

영감은 다 낡은 기계와 같이 흔들흔들 흔들리는 손으로 편지 피봉을 뜯었다. 피봉 속에서는 인찰지 편지 한 장과 불그스름한 다른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이건 10원짜리 돈표요.”

“돈이라뇨?”

“가만 계시우.”

그 친절하 신사는 편지를 다 읽고 아래와 같은 사연을 말해주었다.

“영감의 아들이 한 편진데요, 그동안 무난하구요, 자기는 북간도로 가서 장가도 들고 그곳에 가게도 벌여 영감을 데려가고 지금 서울 와 있대요. 그러니 이 돈으로 서울 와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정거장 대합실에 앉았으면 자기가 찾을 것이니 이 편지 받는 즉시로 서울 오라는 사연이외다.”

영감은 알지 못할 서일권이 자기 아들 만석인 것과 그가 변성명한 이유며, 대구에 오지 못하는 까닭도 우둔한 머리나마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 이 돈은 어디서 찾소?”

“이리 오슈. 요 앞이 우편국이니 내 찾아드리리다. 도장이나 이리 내시우.”

영감은 꿈속과 같았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이치에 안 맞을 일은 아니었다. 다만 놀라움이 꿈속과 같이 의심도 일어났다.

‘영감의 아들이.....’ 하는 소리에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가슴이 섬뜩하였으나 그 놀람은 그때뿐이요 우편국을 나설 때는 끝없는 감개에 사무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았다.

(중략)

“서울 가요.”

“이번은 용산이요, 그 다음이 서울이니 내립시다.”

황 영감은 깜짝 놀랐다. 벌써 서울을 오다니 하고 깜짝 놀랐다. 대구서 서울까지 오는 일곱 시간을 그는 깜짝 놀라는 그만치 빠르게 가진 것이다. 그가 일곱 시간 동안이나 긴 동안을 밥을 잊고 옷을 잊고 담배까지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행복스러운 일곱 시간 동안은 그가 철난 이후로 10여 년간 한 번도 없는 일이다.

그때에 이 황 영감은 유복한 사람들이 늙지 않는 약을 구하는 욕심도 잘 느껴보았다. 행장은 별로 없으나 담뱃대도 집어 들고 여태 쓰고 앉았던 남바위도 만적만적하여보았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 첫 번 들어오는 선수가 목을 뒤로 젓히고 두 활개를 펴들며 달려 들어오듯 먼 길이 끝나는 이 열차도 소리소리 지르며 호기 있게 경성역에 달려들었다.

황 영감도 호기 있게 차를 내려 남에게 묻지도 않고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구름다리를 넘어 나와 차표를 내주고 밖으로 나섰다.

이 황 영감이 밖으로 나서자마자 물결치는 사람 속에서 ‘아버지!’하고 미칠 듯이 부르고 만석이가 뛰어 나섰다.

“오!”

“아버지!”

이때다. 이 황 영감이 눈을 씻으며 만석이를 만나보게 되는 즉, 그가 행복된 새 천지에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이 순간이었다.

남모르는 끝끝한 정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을 잡아보기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짝 가로막으며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황 영감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아침 대구에서 편지를 보아주고 돈까지 찾아주던 그 친절하 신사가 틀리지 않았으나 만석의 눈에는 그 독사같이 무서운 낯익은 형사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앗!”

“이놈, 네 애비 손을 잡기 전에 여기다 먼저 손을 넣어.”

“아, 아버지 ㉤.....”

하고 만석이는 아버지의 옷깃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의 손은 벌써 자유롭지 못하였다.

황 영감이 무서운 꿈을 깨듯 눈을 비비며 다시 아들을 찾아볼 때는 벌써 만석의 그림자는 간 곳이 없었다.

다만 형사에게 묶여 가는 죄인을 구경으로 따라가는 그림자들만 검은 이리 떼와 같이 어물거리며 갔을 뿐이다.

- 이태준, 「행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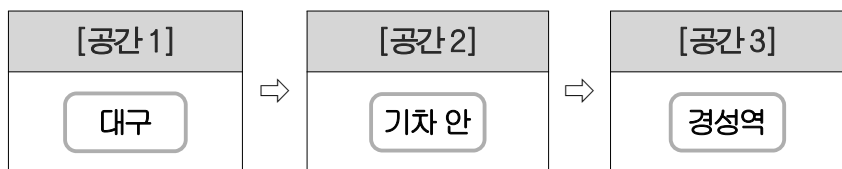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지역적 특성을 가진 소재를 통해 토속적 분위기를 그려내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② ㉡: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어렵게 부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낯선 이름에 대해 의아해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 상대방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39.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와 관련하여 **편지**의 기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1]에서 황 영감에게 만석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다.
- ② 황 영감이 [공간 1]에서 [공간 3]으로 이동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황 영감으로 하여금 [공간 2]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
- ④ 황 영감이 [공간 2]에서 신사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⑤ 형사가 [공간 3]에서 만석을 잡을 수 있게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 내리는 겨울밤이 깊어갈수록
 ㉠ 눈 맞으며 파도 위를 걸어서 간다.
 쓰러질수록 파도에 몸을 던지며
 가라앉을수록 눈사람으로 솟아오르며
 이 세상을 위하여 울고 있던 사람들이
 또 이 세상 어디론가 끌려가는 겨울밤에
 굳어 버린 파도에 길을 내며 간다.
 먼 산길 짙신 가뭇 바다에 누워
 넘쳐 버릴 파도에 푸성귀로 누워

서러울수록 ㉡ 봄눈을 기다리며 간다.
 다정큼나무 숲 사이로 보이던 바다 밖으로
 지난 가을 산국화도 몸을 던지고
 칼을 들어 파도를 자를 자 저물었나니
 단 한 번 인간에 다다르기 위해
 살아갈수록 눈 내리는 파도를 탄다.
 괴로울수록 홀로 넘칠 파도를 탄다.
 어머니 손톱 같은 봄눈 오는 바다 위로
 솟구쳤다 사라지는 우리들의 발.
 사라졌다 솟구치는 우리들의 생(生).

- 정호승, 「파도타기」 -

40. 위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사로 시행을 끝맺어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②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통사 구조가 같은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서 ‘겨울’은 부조리한 시대를, ‘파도’는 시련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한편 이 시의 상승지향적 움직임은 고난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낸다.

- ① ‘겨울밤이 깊어갈수록’은 현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② ‘가라앉을수록 눈사람으로 솟아오르며’에는 상승지향적 움직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민중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이 세상 어디론가 끌려가는’에는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칼을 들어 파도를 자를 자 저물었나니’에서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을 더욱 악화시켰던 세력들이 몰락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사라졌다 솟구치는 우리들의 생(生)’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는군.

42.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화자의 인식을 전환시킨다.
- ② ㉠는 ㉡와 달리,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다.
- ③ ㉡는 ㉠와 달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의미한다.
- ④ ㉡는 ㉠와 달리,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한다.
- ⑤ ㉠와 ㉡는 모두 자기 성찰의 매개물로 작용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임진왜란의 막바지에 선조는 선전관을 보내어 이순신의 동태를 살피게 한다. 이순신이 왕명에 따르지 않고 출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선전관이 알고 이를 조정에 보고하려 하자 이순신의 부하들은 선전관을 구금한다.

#39. 선전관 처소(밤)

파도소리가 들린다. 이순신과 선전관이 마주 앉았다.

이순신 부하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그들이 육지로 퇴실 것입니다.

선전관 (의외다)

이순신 (보며) 그간 불편케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선전관 으음.....

이순신 가파른 전장에서 늘 열 배에 가까운 적을 맞아 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는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대감. 진중이 흔들려 장졸들이 사분오열되면..... 사기는 바닥을 치고..... 허면 적을 맞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전관 통제사.....

이순신 장수된 자의 소임은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물리치고, 전란을 온전히 거두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옵서 소장에게 진정 바라는 것도 그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선전관 여보시오, 통제사. 허나.....

이순신 마지막으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선전관 (보면)

이순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결진 마음 하나로 칠 년을 하루 같이 전장을 지켜온 순수한 자들입니다. 전하께옵서 그들의 충정만은 의심치 않으실 수 있도록 대감께서 도와 주십시오. (이순신 일어서고)

선전관 통제사! (따라 일어서는데)

이순신, 목례하고는 돌아서 나간다. 선전관, 움직이지 못하고 이순신이 나간 곳을 굳은 채 바라본다.

#40. 바닷가 일각(밤)

이순신 묵묵히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내일이면 또다시 적의 피로 물들 바다..... 군왕의 명마저 거역하고 나아가는 전장..... 잘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 전란을 거둘 수만 있다면..... 최고지휘관의 고뇌는 길다. 이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영남(E) 선전관을 풀어준다 하셨대요?

조용히 그 옆에 와서 서는 이영남. 이순신 천천히 끄덕인다.

이영남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장군..... 허면..... 적군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도 장군을 기다리는 것은 금부도사의 오라일 것입니다.

이순신 (묵묵히 바다를 보다가)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이첨사.

이영남 세상은 장군이 믿고 계신 것처럼 맑고 명징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돌을 던지고 싶으냐?

이영남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순신 탁류에 돌을 던지면 물은 더욱 탁해질 뿐이다.

이영남 장군.

이순신 세상을 분기와 혈기로 바꾸려 들지 마라. 군인이 그같이 선부른 마음을 품으면 부하들의 창이 동족의 심장을 겨

누게 된다.

이영남 하오나.....

이순신 묵묵히 이영남을 향해 돌아선다. 이영남 굳어지는데.....

이순신 명심해라, 이첨사. 군인의 소임은 오직 조국을 위협하는 적의 창을 온전히 멈추게 하는 데 있다.

이영남 (입술을 깨문다.)

#41. 행궁 일각(밤)

뒷모습이 보이는 선조, 돌아서면 그 앞에 류성룡이 서 있다.

선 조 한 장수가 있었소. 그는 전란이 일어나자 혼신의 힘을 다해 적을 물리쳤소. 그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오.

류성룡

선 조 한 임금이 있었소. 전란을 당하자 그 임금은 허겁지겁 몽진을 떠났소. 백성을 버린 채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소이다.

류성룡 전하.....

선 조 전란이 끝났소. 장수에게는 백성의 신망과 그를 따르는 강한 군사가 있으나 임금에게는 문약한 신하와 오합지졸뿐.....

류성룡 망극하옵시다. 전하.

선 조 (돌아보며) 그대라면 어찌하겠는가? 그대가 이 나라 조선의 종묘사직을 지켜야 할 군왕이라면 어찌 하겠나이 말이외다.

류성룡 전하, 통제사 이순신은 전하의 충직한 신하이옵니다. 그의 충심을 추호도 의심치 마시옵소서.

선 조 충신이라.....

류성룡 (불안한 듯 보며)

선 조 (끄덕인다, 노회한) 나 역시 이순신 그가 과인의 충직한 신하라..... 믿고 싶소.

류성룡 (아슬아슬한 표정으로 보는데)

선 조 (싸늘한) 그가 진정 과인의 충신이라면 왜적을 섬멸하여 이 나라 조선의 안위도 지키고, 왕실의 위엄을 세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지요.

류성룡 (굳어진다.)

#42. 유도 통제사 집무실(밤)

면사첩을 꺼내보는 이순신. 천천히 넘기는 이순신, 그 위로

선 조(E):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이순신 면사첩을 넘기면 ‘免死(면사)’ 두 글자. 그 위로 창검을 앞세우고 바람처럼 달려오는 의금부 군사들. 수레에 갇혀 칼을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 두 눈 질끈 감았다가 다시 ‘免死’ 두 글자가 커다랗게 흔들리며 보이다가 점차 ‘免’자는 사라지고 ‘死’자가 점점 크게 다가온다. 死, 死, 死..... 마치 운명이 다가오듯..... 이순신, 눈을 감는다. 그러다 이내 번쩍 뜨는

이순신 (차분) 면...사... 죽음만은 면해준다 하셨습니까?

이순신, 면사첩을 집어 화로에 툭 던진다. 곧 타오르는 면사첩, 이순신 면사첩이 타며 화르르 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본다.

- 윤선주 각본, 「불멸의 이순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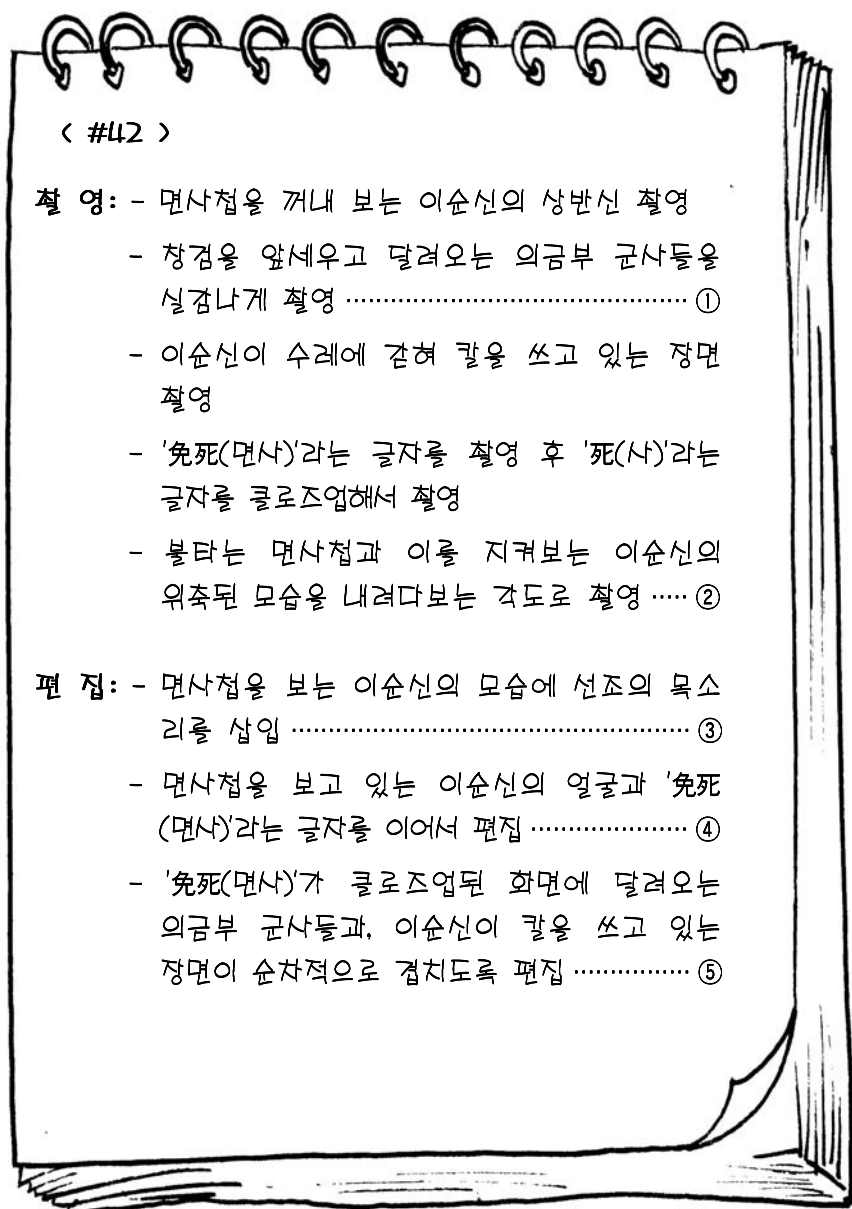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효과음을 삽입하여 작품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소품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역전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4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순신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장수로서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 ② 이영남은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 ③ 선전관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이순신과 이영남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④ 선조는 전쟁 이후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순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 ⑤ 류성룡은 이순신의 편에서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나 임금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한다.

45. 다음은 시나리오에 충실하게 #42를 연출하기 위한 메모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